

한국-Korea 신조어

: 2026 1 15 6:35

타이틀	설명
자라니	자전거의 "자"자와 고라니의 "라니"를 합친 말이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고라니처럼 차량 운행이나 도로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드는 자전거 라이더를 뜻한다.
잼민이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무개념 초등학생을 낚춰 부르는 말이다. 쓰임에 따라 모든 초등학생을 말하기도 한다.
작업	원래는 일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지만 윤다훈이 세 친구에서 이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한 게 유행하면서 속칭이 되었다. 사실 일을 하는 것만 따지면 이 또한 '작업'이라고 할 수는 있다.
자존감	'자존심'의 '자' + 감정을 나타내는 접미어 '-감' '이 만나서 생긴 신조어. 자기계발서의 난립으로 보급된 단어로 보인다.
자뻑	'자' + '뻑' : 화투 세대와 현 세대의 인식차가 매우 큰 단어로, '뻑'의 어원이 다르다.
정돌이	1. 사람이나 동물을 어떻게 부르는 말이다. 2. '정품' + '-돌이'. '복돌이'와는 반대로, 정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전일	전국 1위
정뚝떨	정이 뚝 떨어진다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낳고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잼	재미